

광주·전남, 광역철도 갈등 일단 봉합

에타 조사 중단 합의 협치·상생무드 조성 시급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내 효천역 경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단 '에타당성 조사 중단'에 의견을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사·도 상생 사업마다 첫 시작부터 화합과 협력보다는 갈등-대립 양상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 간 협치(協治)로 지역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까지 끌어올리는 상생 무드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4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효천역 경우 등 노선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남도는 "광주지역 노선은 광주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면 (에타당성 조사) 기간 연장 또는 일시적 정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남도의 의견을 첨부해 현재 효천역이 빠진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에타당성 조사를 중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효천역을 경우하는 노선 변경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뒤 효천역을 포함한 에타당성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조5192억원이다. 국토부는 광주 상무역, 나주 남평역, 나주 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6.46km의 복선전철로 에타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건설비 일부(2000억원)와 연간 운영비 일부(100억원)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구 3만명의 효천지구(역)를 경우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지출할 뿐 광주시민에게 편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주시 주장처럼 효천역을 추가할 경우 26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점은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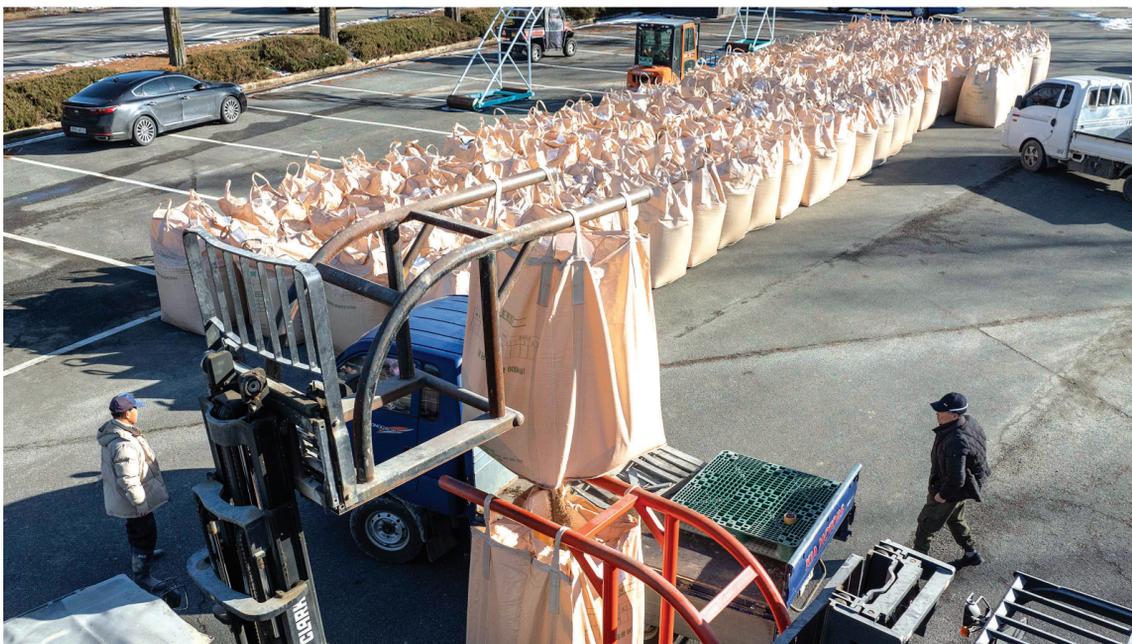
전남도는 그동안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에타를 진행한 뒤 노선변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조5192억원이다. 국토부는 광주 상무역, 나주 남평역, 나주 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6.46km의 복선전철로 에타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건설비 일부(2000억원)와 연간 운영비 일부(100억원)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구 3만명의 효천지구(역)를 경우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지출할 뿐 광주시민에게 편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주시 주장처럼 효천역을 추가할 경우 26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점은 부담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에타를 진행한 뒤 노선변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밥맛 좋은 화순 쌀 사세요" 25일 화순군 백야면의 한 주차장에서 농민들이 장비를 포대버를 주차장에 내려 놓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매입을 하지 않자 주차장에 포대버를 쌓아놓고 정부 매입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일반 상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농업인단체, 탄소중립사업 참여하세요"

다음달 23일까지 모집...논 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 실천하면 활동비

전남도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단체를 2월 23일까지 시·군에서 모집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 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 농가는 ha당 15만원, 논물 알개 걸러대기 시행 농가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 성과를 도출하

기 위해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지원한다.

특히 탄소 감축 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똑같이 50ha를 경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50명이 1ha씩 경작하는 경우 2명이 25ha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사업량은 시·군별 1~2개소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농업인 단체는 단체나 법인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에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내년 국비 확보 선제 대응

2개월 빨리 첫 보고회...마중물·신규사업 발굴 등 공유

광주시에 IMF 이후 최대 재정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에서 '2025년도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통상 3월에 개최했던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2개월 앞당겨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모든 실국이 참여해 전년 국비 확보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 실국별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신규 사업을 발굴·공유했다.

2025년도 국비 신규 사업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조성(총사업비 6000억원) ▲미래차 인증센터 구축(380억원) ▲미래차전환 다차종 유연적용 부품 중소기업 역량 강화(135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800억원)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100억원) ▲시설물 붕괴 안전 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110억원) ▲공공의거리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137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국비 확보 추진전략으로 22대 총선 공약, 민선8기 시장방향과 연계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기로 하고, 광주 정책연구회(광주연구원 등 공공기관)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비확보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신규 사업 발굴시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연구개발(R&D)사업 과학기술심의 등 국비지원 사전절차를 조기 이행하고, 국책연구기관 등 자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획보고서를 작성해 국비 확보 당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능리를 보완해 4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AI 실증도시 조성' 전문가와 협력

분야별 16명 참여...2단계 기획 추진현황 보고·의견 수렴

광주시에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협력에 나선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제2기 인공지능산업위원회는 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강기정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새로 구성됐다. 이날 2기 위원회를 이끌고갈 공동 위원장으로 김경백 전남대 AI융합대학 교수가, 부위원장으로는 김종민 인공지능산학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1단계와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기획운영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의견수렴 및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에 대한 2단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는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국가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광주가 인공지능(AI) 실증도시로서 대한민국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역역량을 집결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산·학·연 각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2기 위원회에 합류함에 따라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기 위원회는 앞으로 광주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 기술 및 융합 지원, 인공지능기업 지원 등을 심의하고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 2단계(2025-2029년) 추진을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 품질 관리해 수출 3억불 시대 앞당긴다

품질관리제 도입...신선 마른김 품질·가격 경쟁력 확보

전남도가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의 품질 관리,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 나선다. 전국 김 생산량의 4분의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가 김 수출 3억 달러를 목표로 자체적인 마른김 품질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조원을 넘긴 김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남은 세계 김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마른김은 일본산이 1만톤, 중국산은 6000톤, 한국산은 4000톤으로 한국산 마른김은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해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마른김의 위생·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전남형 마른김 품질관리제도 연구용역을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실시했다.

이어 고충군 수렴에 총 59억원의 예산을 들여 김 검사장 구축을 지난해 2월 완료했다. 또 마른김 저장 창고와 금속 검출기, 이물질 선별기 등 품질·위생 관리 장비를 도입해 김 품질 검사와 자체 등급제를 시범 운영, 보완 사항 등 점검을 마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2(금)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일반편입 (3학년)	○	○
		학사편입 (3학년)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일반편입 (3학년)	○	○
		학사편입 (3학년)	○	○
사범	유아교육과	일반편입 (3학년)	○	○
		학사편입 (3학년)	○	○
예능	음악학부	○	○	○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전형일: 2024. 1. 26(금)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35로 36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1. 3(수) ~ 6(토)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